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을 나주 키워드 '문화행복도시'

나주시가 2016년 한해를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나주문화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나주문화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순수 시민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인력 양성을 통해 문화일자리와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생활현장과 문화 소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 활동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3일 "역사적으로 나주관찰부가 광주로 옮겨간 지 120주년 이 되는 올해 2016년을 '나주문화융성 원년'으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주를 시민이 문화 주체가 되는 진정한 문화도시, 문화의 힘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활성화하기 위해 민선 6기 '4대 핵심사업 10대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올해 문화복지와 문화생태계 창조를 목표로 우선 9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합창으로 시민 화합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개 읍면동별 마을합창단 창단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창단과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을 재정비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화해 새롭게 나주시립예술단을 창단함으로써 문화도시 나주

마을합창단 창단·찾아가는 공연 순수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문화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청소년 인재 100명 키우기 착수

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소외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공연을 활성화하여 시민 문화행복지수를 높여갈 계획이다.

나주시는 이미 지난해에 찾아가는 예술 공연과 영화관 운영으로 문화소외지역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시립국악단의 영산강 황포돛배 선상공연은 나주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시민이 문화를 생산소비하는 진정한 주체로서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순수문화예술동아리 육성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지를 원도심 중심으로 추진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융성의 기본토대가 되는 문화인력과 문화예술 인재양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주의 풍부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꼽히는 설화, 민요, 인물이야기를 구현하는 '나주 이야기 할머니'와 나주에 어울리는 전래놀이문화 상품화를 위한 '전래놀이 지도사' 등 문화인력 40명을 시범 양성한다.

나주시는 올해 양성되는 문화인력을 지난 2015년 나주관광학교를 통해 배출된 나주관광해설사와 함께 나주의 문화관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문화예술인재 양성사업으로는 올해부터 나주삼현육각, 성악, 오케스트라 등 3개 분야에 걸쳐 청소년 인재 100명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도 착수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황포돛배 선상공연

문화재 보수예산 2년 연속 100억 돌파

금성관 연못터·북문 복원 등
나주시 올해도 103억원 확보
문화유산·도시재생 연계 추진

나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문화재 보수 예산 100억원 돌파에 성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 관련 국비를 지난해 118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이미 103억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나주읍성 북문복원 40억원, 금성관 연못터 복원정비 20억원, 석당간 토지매입 16억원, 다보사, 죽림사 일주문 복원, 심향사 극락보전 해체수리 등 16억원, 전통사찰 보수 4억5000만원, 전남도 지정문화재 3억5000만 원 등 모두 103억원을 문화재 원형 복원 정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특히 국가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 일대의 문화재 사적구역 95%를 매입하고 적극적인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금성관 주변 정비를 시작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또 규모면에서 전국 5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히는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993년 남고문 복원을 시작으로, 2006년 동점문 복원, 2011년 영금문(서성문) 복원을 마치고 지난해부터 마지막 남은 북문복원 공사와 서성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올해 구도심에 밀집돼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과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해 금성관 동측 학술발굴 현장을 찾아 출토된 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교육 등을 통한 도시재생의 선순환 거점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통문화유산 활용과 최근 선정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한 문제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프로젝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나주한교활용 사업 등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나주하고 활용사업인 '굽은 소나무 나주를 살리다'사업은 지난해 문화재청의 우수 사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성공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국토부가 선정한 나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국비 60억원)을 들여 나주읍성권 주변 정비 등 도시재생을 통해 나주읍성권을 살아가는

박물관 도시로 만들고 근대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영산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읍성권 정비사업, 마을생태박물관 조성사업 등도 시행된다.

나주시는 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점 개설, 빈집 등의 폐자원을 활용한 코어박물관 조성해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와 전통찻집 등을 조성해 주민 소득창출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돌담정비, 자투리땅 정원조성, 클린나주 캠페인 등 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읍성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복원과 도시재생 사업을 결합해 원도심 중심상권 활성화 등 도시의 기능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불회사 비자·차나무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와 차나무 숲이 산림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다도면 나주호 상류에 있는 불회사 비자나무 숲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나주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다. 또 덕룡산 자락에서 자란 차나무는 불회사에서 찾았을 불회약자를 제다하는 등 생태적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흥릉숲을 비롯한 13개소로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해남 관두



나주시 다도면 덕룡산 자락에 자리잡은 천년고찰 불회사 전경.

산 풍혈 및 샘, 안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와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와 차나무숲 등이 포함됐다. 불회사는 서기 366년 창건된 고찰로, 불

회사가 있는 곳은 한국의 다성이라 일컫는 초의선사가 덕룡산에 출가해 차를 달인 것으로 알려져 '다도'라는 지명을 얻게 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는 비자나무 아래서 그 이슬을 머금고 자란 차잎으로 만들어져 '비로다'로 불린다.

1930년대 말까지 나주와 강진, 장흥을 중심으로 청태전과 돈자류를 만들어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차를 마셨으며, 해방 이후 그 맥이 끊겼다가 이곳 불회사에서 돈차와 벽돌차의 맥을 오늘날까지 맥자로 잇고 있다.

불회사 대웅전을 둘러싸고 있는 비자나무림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임상이 아름답고 산림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300~400년 비자나무는 수고 14m에 달하고 이곳의 비자나무와 차나무는 약재 공급원 및 방화림 역할까지 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